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의 지혜를 알 수 있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지혜, 효, 정약용, 과학자, 정조, 한강, 배다리, 수원화성, 원형을묘정리의궤

한국문화 • **목표** : 한강에 배다리를 놓게 한 정조의 효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강의 배다리, 효(정조의 효심)

한국어 • **목표** : 배다리처럼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을 알아본다.
• **단어** : 배다리, 논밭, 책가방, 꽃나무
• **표현** : 배다리를 건너다. 꽃나무를 심고 가꾸다.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강’이라는 강인데요. 지금 한강에는 다리가 여러 개 놓여 있지요.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강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널 때마다 배를 타고 다녔대요. 정조 임금 때 정약용이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배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어찌나 똑똑한지 뭐든 똑딱 배웠어요. 또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걸 많이 생각해 냈지요. 글공부는 물론 수학과 과학도 무척 잘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약용은 의젓한 어른이 되었어요. 늘 글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과거 시험도 금방 합격했어요.

지혜로운 임금 정조는 그런 정약용을 바로 알아봤어요.

“허허, 정약용은 모든 학문을 다 잘하는구나. 내 곁에서 나랏일을 돕거라.”

정약용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썼어요. 특히나 책만 보는 공부보다 사람들 생활에 쓰임이 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조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거든요. 하지만 궁궐과 거리가 멀어 매년 무덤을 찾아 인사하러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생신을 맞아 큰 잔치를 할 생각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신하들을 데리고 아버지 무덤에 가려고 했지요. 정조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배로 한강을 건너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많은 신하와 군사들을 배에 다 태울 수도 없고. 어찌할꼬.’

정조는 고민 끝에 정약용을 불러 물었어요.

“약용아,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쉽게 건널 방법이 없겠느냐?”

정약용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면 어떨지요?”

정조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정약용의 말에 반대했어요.

“배를 새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위험합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하지만 정약용은 곳곳하게 말했어요.

“걱정들 마십시오. 모두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조는 먼저 강의 너비가 적당하고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을 정했어요. 그러고는 정약용에게 당장 배다리를 만들라고 했지요.

정약용은 배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내용을 적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만들 때 필요한 배를 구했어요. 배는 새로 만들지 않고 물건을 나르는 배들을 모았어요. 물론 배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두 더 열심히 배다리를 만드는 걸 도왔지요.

정약용은 모인 배들을 막대기로 쪽 연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말이 건널 수 있게 가운데 소나무 판자를 놓았어요. 그 위에는 잔디까지 깔아 정말 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지요. 정약용은 일꾼들과 함께 먹고 자며 쉬지 않고 일했어요. 머지않아 정약용이 그린 그림처럼 점점 배다리가 완성되어 갔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어요. 위험하다고 반대하던 신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



이야기 들려주기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드디어 모두의 노력으로 배다리가 완성되었어요. 멋지고 긴 배다리는 한강을 가로질러 이어졌지요.

“허허허, 수고했다! 훌륭하구나!”

정조도 정약용이 만든 배다리를 보고 기뻐했어요.

얼마 뒤, 정조 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크게 열렸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떠났지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요.

“자, 이제 배다리를 건너자꾸나!”

정조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머뭇머뭇하는 신하들에게 정조가 껄껄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면 금세 수원으로 갈 수 있다. 걱정 마라. 정약용은 절대 허투루 만들 사람이 아니니. 안전할 것이다. 자, 가자!”



이야기 들려주기

정조가 배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자 뒤를 따라 군사들과 신하들도 배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실은 마차들도 뒤따랐지요. 튼튼한 배다리는 모두가 건너갈 때까지 끄떡없었어요.

“이야! 무사히 강을 건넜어!”

행렬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약용, 자네가 만든 배다리 덕분에 쉽고 빠르게 도착했구나. 고맙구나.”

정조가 정약용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약용은 그 후로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또 백성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도 많이 썼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 볼까요?

그래요. 배와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배’와 ‘다리’가 합쳐져서 ‘배다리’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두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논’과 ‘밭’이 합쳐져서 ‘논밭’, ‘책’과 ‘가방’이 합쳐져서 ‘책가방’이 되는 것처럼요. 그럼, ‘꽃’과 ‘나무’가 합쳐지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심고 가꾸는 ‘꽃나무’이지요. 친구들도 두 낱말이 합쳐진 단어들을 찾아보아요!

여러분, 정약용이 한강의 배다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정조 임금이 부탁하였어요. 매년 아버지 무덤이 있는 수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어머니와 많은 신하들이 한강을 쉽고 빠르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니까 배다리는 정조의 효심과 정약용의 지혜가 담겨 있는 발명품이에요. 정약용은 배다리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정약용의 발명품들은 수원화성을 만들 때 큰 역할을 했지요. 정약용의 발명품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한강에 배다리를 놓은 정약용’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약용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든 학자이면서도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살피며 호기심을 가져 보세요. 훌륭한 발명가,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할머니는 믿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